

## 구원론

### 【복음의 출발점】

- 성경 본문 : 로마서 1:1-23
- 요 점 :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의 태도

#### 생각을 위한 질문 20분

1.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까?  
또는 어떤 경우에 그런 권면을 받아보셨습니까?

-----  
-----

2.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 ① 광신자로 보일까봐 안하는 경우가 많다.
- ② 부끄러워 못하게 되곤 한다.
- ③ 할 경우가 있지만 좀 쑥스러운 느낌이 든다.
- ④ 의무감에서 할 경우가 있다.
- ⑤ 상대가 가까운 관계일 때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된다.
- ⑥ 기타의 태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본문 이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을 설명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자  
신이 말하는 내용, 즉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정적인 표현방법입  
니다. 이것은 복음의 출발점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순서」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  
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것을 듣

는 이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제시하였을 때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 온다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가지 대답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답변을 주로 하십니까? 혹은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대답을 즐겨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언제나 그 처음을 자랑스럽다'로 시작합니다. 왜 자랑스러워 하는지,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거나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제가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할 때, 그 자랑스런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당할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제시가 있기에 자랑스런 것입니다. 즉,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위기는 죄, 저주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얘기하기보다는 축복을 얘기하기를 더욱 좋아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지적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5분

1.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진다고 고백합니까? \_\_\_\_\_

2. 바울은 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까?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0분

1. 바울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복음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의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도움말

●하나님의 진노 :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적대감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대개 사적인 원한이나 앙갚음으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비합리적인 형태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의가 없는 정당한 원칙을 가지고 조절되는 것입니다.

### 【복음의 복음됨】

- 성경 본문 : 로마서 1:18 - 23
- 요 점 :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

생각을 위한 질문 10분

1.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 

### 본문 이해

언제인가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단순히 지옥갈까 무서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옥갈까 무서워 해서 믿는 예수라니, 그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옥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에 대하여 점수로 채점을 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70점 이상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죄, 지옥, 저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천국, 영광, 책임, 사명, 수준... 이러한 말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사명과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자고 얘기하는 가장 큰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기껏 지옥이 무서워서 믿는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기독교로 얘기하지 말고, 좀더 관찮게 적극적인 구실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워 할 것도 없는 자로서 자신을 자꾸 높여 하나님 앞에서 일 대 일로 떳떳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선물을 들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신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아니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갈 죄인인데, 구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바라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선물을 싸들고 들어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일에 불과합니다. 이것 만큼 죄의 「죄된」모습을 가장 잘 감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일 대 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속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죄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 나중에는 상당히 교묘해져서 천사의 모습으로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기술(記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꼴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그 「괄시」의 길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했겠습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오해와 경멸과 비참한 상태와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 또한 마태복음 27장 42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간악한 무리들의 말이 갖는 엄청난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도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구나'라는 슬픔의 감정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 만큼 철저하게 이를 갈고 계시는구나' 라고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은 큰일 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살려 주십시오' 라는 아우성을 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렇듯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결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갖지 못한 자들은 모두 큰일 날 자리에 있기에, 가진 자는 가진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축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해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비례하여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자리잡

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안 주시고, 즉, 아들도 안 주시고, 삼수, 사수를 하고, 대학 문전에도 못가고, 수능을 보면 낮은 점수를 받아 오고...이래도 만족하시렵니까? 머리에는 온통 종기가 나고 발에는 낫지 않는 무좀 투성이고, 집은 늘 앉아 있어야만 하는 움막집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실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이 세상이 우리를 할퀴는 것으로는 빼앗길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10분**

1. 죄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_\_\_\_\_

-----

2. 하나님께서 처절하리만큼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_\_\_\_\_

-----

3.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0분**

1. 예수 믿어 복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본문의 설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_\_\_\_\_

오늘은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예수 믿어 복되다는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복의 개념을 왜곡되게 이해한 신앙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

● 구원 얻기 이전의 큰일날 상태 : 죄인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재판정에서 선고되어 그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짓는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에 그 형량이 엄청난 현세와 내세에 있어 계속됩니다. 구원 얻기 이전의 인간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 【오해된 복음】

- 성경 본문 : 로마서 1:18 - 23
- 요 점 : 복음을 오해한 신앙의 잘못된 두 형태

생각을 위한 질문 10분

1. 신자라면 남들보다 세상적으로도 잘 되어야 된다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 신앙의 정당한 출발점은 어디인가? 다음 설명은 그 출발점의 위치를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 본문 이해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가장 굵은 단어로 이야기할 때에 첫번째의 정의로는 '자랑스럽다'라 하고, 두번째의 정의로 '너희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축복이다' '천국간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하지 말고 지옥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복음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두 가지 유형을 살펴 봅시다.

**신비주의자들의 오류** -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하면서 고행이나 명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신비주의로 흐르는 쪽에서는 「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축복에 관한 얘기만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온 사람에게서 전자에서 후자로 옮겨왔다는 분명한 자기 감격과 마땅한 변화가 있으나 지옥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없으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기쁨이 없고 출발지점이 다 같아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출발점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자는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가 지옥에 갈 것이 아닌 자리에 있으니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속하던 영역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우선 고맙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차

이를 기초로 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 믿으면 본전이고 믿으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믿은 쪽이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표시를 축복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믿으면 남보다 돈을 많이 벌든가, 남보다 자식들이 더 잘되든가, 남보다 건강하다든가 아니면 은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 이상의 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나라에 이러한 경향을 띤 운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믿는 사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합리주의자의 오류** - 또 다른 유형으로서, 지옥이니 천국이니 하는 것은 완전히 접어놓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자존심의 문제와 관련된 사상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만을 추적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러한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떳떳하게 사느냐 하는 것을 경쟁처럼 삼으면서 또한 염세적인 얘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무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음으로 납득될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해서 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오셔서 대신 죽어야 구원될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할 때는 오히려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다 지옥갑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까닭없이 높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이상으로 쌓을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저는 십일조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결산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이 갖는 적극성 이전에 복음이 있어야만 했던 우리의 상황을 훨씬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얻은 기쁨 이전에, 또 복음이 갖는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복음이 있어야만 될 지경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지경과 처지에 있었기에 복음이 주어졌어야만 했던가를 늘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큰일날뻔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속에 있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져야만 하고 내가 인정해야만했던 그 처지가 무엇이었느냐가 언제나 마음 속 깊이 전율처럼 스쳐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신비주의자들은 지옥 대신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결과로 어떤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됩니까?\_\_\_\_\_

2. 합리주의적 생각을 가진 지성인들은 지옥이나 천국 대신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결과로 어떤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됩니까?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0분

1.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 오늘은 그릇된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의 유형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 신비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이 그릇된 신앙의 형태로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보다 명상이나 이성에 치중함, 즉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 【인간의 상태(1)】

- 성경 본문 : 로마서 1:18 - 32
- 요 점 : 죄 있는 이방인의 상태

생각을 위한 질문 15분

1. 눈에 보이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외에도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_\_\_\_\_

2. 무신론자들은 정말 어떤 신(神)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_\_\_\_\_

☞ 현대로 진행될수록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로 자신들을 진단해 왔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분위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업신여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현대인들의 생각이 모순덩어리



라는 것과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 본문 이해

로마서 1:18절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여러 범죄들의 증상들을 통하여 여전히 계속되는 근본적인 질환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1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렁이가 메니큐어를 생각할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각질이 없는 지렁이가 메니큐어를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종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피조될 당시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본성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한 것 같이 자연을 통해 그 초월자를 찾는 마음을 더 자극받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은 다 같이 한 창조주에게서 피조된 형제이기에 자연을 보면 창조주에 대한 어렴풋한 향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극받는 하나님의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조물주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정당한 것이 아님은 22절-23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자신들에게 있는 초월성과 신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아 만든 것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것들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나은 경배의 대상을 찾아 만들어 놓은 것이 소, 개구리, 서 있는 독수리의 모양이라면 그 일을 한 자들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폭로하는 셈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종교적 수준에서 그들의 참 모습이 이런 정도라면, 그들의 일반 도덕적 수준은 또 어떻겠습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 약육강식, 생존경쟁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저급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인간들끼리도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나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서너가지씩은 다 그 문제들에 저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증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죄인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상태에서 계속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

로도 심판받고 있으니 죄인됨을 더욱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어떤 한계를 두어 제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어떤 극악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의 억제를 그만두셔서 인간이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죄를 행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수준에 인간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치 폐결핵에 걸려있으면 기침이 나고 오후에는 미열이 나며, 투베르쿨린 양성반응을 하게 된다는 현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폐가 썩고 있는데 기침약을 먹는다',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한다'는 식으로 어떤 미봉책을 구하는 일에 그친다면 무덤에 회칠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 초점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죄,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성향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생리적으로…'

#### 이해를 위한 질문

1.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찾아 보십시오.

\_\_\_\_\_

2.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하는 우스꽝스러움을 이사야 44장 9~17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_\_\_\_\_

\_\_\_\_\_

3. 본문에서는 사후에서만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_\_\_\_\_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죄악 (불의)들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을 나타난다고 그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순서를 제시함으로 인류의 죄악들은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출발케 되었음을 증명합니까? \_\_\_\_\_

오늘은 지식과 문화적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여기고 있는 현대인들도 과거, 그

들의 조상과 동일하게 여러 형태로 죄를 짓고 있는 수준임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적으로 진일보해 있다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말

●롬1:24-27과 창2:15-25을 비교하여 읽어 보면 바울은 인류의 죄악을 지적함에 있어 처음 인간이 창조된 순서를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서 떠난 인간은 그 죄악됨을 아내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음란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인간의 상태(2)】

○ 성경 본문 : 로마서 2:17 - 29

○ 요 점 : 율법을 가졌음에도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유대인들의 현상

유대인들이란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던 민족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들에게 전승된 율법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이방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들의 절망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약도로 비유한 설명은 이 부분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십시오.

본문 이해

바울은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위치를 밝힘으로써 그들도 죄인이며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분명히 율법을 제시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님에게 중앙청에서 강남고속터미널로 가는 약도를 그려 주었습니다. '중앙청에서 일단 광화문까지 나오고 광화문에서 조금 더 가면 시청이고 거기서 곧장 가면 소공동이 나오고 신세계백화점이 나온다. 또 삼호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반포대교가 나오고 대교를 통과하면...' 이와 같이 위치를 상세히 그려서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도를 받은 사람이 장님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하기가 종이를 지팡이처럼 돌돌 말아서 짚고 다닌다면 이것마저

없는 사람보다 낫겠습니다만 오십보 백보입니다. 율법은 약도와 같습니다. 율법을 받고서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는 것은 눈을 뜬 후에야 비로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도인데, 장님들이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쓴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자 그것을 단지 지팡이로 쓰는 바람에 오히려 '아, 이 사람들은 장님이구나'라고 탄로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식적인 이해력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위의 예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은 장님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지팡이로 밖에 못썼기에 약도 안에 있는 내용의 이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율법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이방 민족이 갖는 도덕과 양심보다 나은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빈손이고 그들은 지팡이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지팡이를 가졌느냐 안가졌느냐 하는 것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율법이라는 「약속」을 제시한 후에 그 율법을 받은 자가 약도대로 목적지까지 찾아오지 못한 것을 보고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장님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앞선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앞설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도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곳에서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장님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약도대로 광화문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묻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어도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치명적인 이름으로 불리워진 집단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바, 율법의 정신과 깊이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장님임에도 장님인줄 모르는 사람에게 약도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_\_\_\_\_

2.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리를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분명하게 죄인임 깨닫게 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절감케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_\_\_\_\_

오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여 남을 정죄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용도로만 율법을 사용해버린 유대인들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선민이 되어서 이익 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도 율법의 깊이와 정신을 오해한 나머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록 「율법의 정신과 깊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율법의 정신과 깊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까닭은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데 그 내용, 즉 본질은 율법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과 의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이란 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내용,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분의 속성과 수준, 즉 율법의 본질을 보고 도저히 거기까지 미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구원은 인간에게 가능성을 둘 수가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제시된 내용은 안 보이고,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만 감지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러한 형식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죄인인 유대인의 눈에는 마치 각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원래는 그 내용이 목적이 되어야 할 율법이 지키는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킨 자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바는 율법의 본질이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임을 보고 그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원래의 기능을 못살린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방법론이 아닌, 내용으로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 【율법과 유대인】

- 성경 본문 : 로마서 3:1-20
- 요 점 : 율법을 말음으로 얻게 되는 유대인의 유익

사도 바울의 구원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자신이 설명한 것들을 추적하고 있는 자들이, 심리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세세하게 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라면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예상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 본문 이해

앞 시간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패되었으며 그릇된 종교생활 속에 빠져 있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피 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율법과 할례 등의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기에 이익을 보기보다는 구원 문제에 대한 착각을 일으킨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히 유익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 유익이 많다고까지 말합니다 (롬 4 : 1-2), 율법과 할례를 갖지 않은 이방인보다 그것을 가진 유대인들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1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정할 때의 번거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키 위해 일부러 양심이란 기준을 동원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는 율법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였기에 행위의 정당성을 위한 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가 기준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율법적 습성과 전통이 그 민족을 바꿔놓지는 못했을지라도 악과 선을 구별하는 역할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절에는 특히 국어시간에는 떠들만한 아이를 골라서 대표로 책을 읽게 하던 선생님이 계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려진 학생은 계속 떠들고 있을 때보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분명히 얻는 이익이 있게 됩니다. 최소한 자신이 읽는 그 페이지만큼은 어느 정도 내용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즐기거나 떠들거나 한눈파는 아이들에 비해 자신이 읽었다는 것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비의도적이지만 율법을 사회 습성 속에 갖고 있었기에 타 민족에 비해 얻게 되는 이익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이런 유익한 분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저들이 죄인이었기에 정작 주어진 유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율법과 할례를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눈이 감겨 있어 맡은 것을 제대로 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 이익본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밖에는 그들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어 타 민족과 구별시켜 역사적으로 쓰신 이유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르치시고자 할 때, 우리 모두에게 경험으로 확인시키지 않고, 이를테면 우리 모두를 얹혀놓고는 대표자 하나를 택해서 그 일을 경험케 하신 후, 앉아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 그 쓴 맛을 보지 않고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전기를 잘못 만지면 죽는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일일이 꽃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그가 고통 받도록 하고, 그것을 보고 남은 사람들이 모두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방법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아담 사건이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두 Sample입니다. 이스라엘은 Sample이 되는 그 일 하나 때문에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 결국 그것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성도가 범한 오류를 그대로 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들이 구약으로 인하여 얻는 그 유익이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왔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현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을 Sample 속에 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Sample을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많은 심령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Sample을 보지 못했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약 백성은 Sample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구약 백성들에게는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것을 만지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너희들 봤지. 죽는 것을 보았지, 알겠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쪽이 더 쉽고, 구약 백성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큰일 난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역사상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같이 친히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큰 이적과 두려운 말씀 속에서 그같이 권면한 백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구약백성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다 조금도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Sample을 보았든지 못 보았든간에, 동일한 조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고작 '누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위대하다 라는 것만을 과시하기 위해 주었을 리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을 정확히 지적했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제시한 바 율법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고 만들어 줄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미까지도 율법 속에는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그 수준에 이르도록 힘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율법은 정죄의 도구만이 아닌 은혜의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어쨌든 기억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제시하는 의와 거룩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커트라인 밑에 위치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기에 구원의 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_\_\_\_\_

\_\_\_\_\_

2. 이스라엘 백성들의 Sample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_\_\_\_\_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 율법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지적해 주는 것  
에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율법이 유대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  
니까? \_\_\_\_\_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여지는 과정 동안 전혀 억울할 것  
이 없는 이유들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당면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란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인류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 도움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가치와 유대인의  
유익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인류 역사 중에 유일하게 유일신론(Monotheism)이란 정당한 신개념을 가졌으며, **둘째**  
로 그 유일신이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친히 통치하심으로 독특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모  
습을 드러내시며, **셋째**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나와서 온 세계에 모든 은혜  
를 주신다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은 중보적 위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 성경 본문 : 로마서 3:19-31
- 요 점 : 율법 외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도

생각을 위한 질문 5분

1. 공통성이 전혀 없는 속담은 어떤 것일까요?
  - ① 아니 땀 굴뚝에 연기나라.
  - ②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③ 드는 돌에 낫 붉는다.
  - ④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는 인간의 절대절망의 상황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일반인이 가진  
종교심으로도 유대인이 가진 율법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불  
가능한 방법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절망적 상황에 빛을 던져주게 됩니다.

본문 이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에 대하여 먼저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이제 다음 단계에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복음을 '율법이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라는 말로 설명이 시작됩니다. “율법으로는 안된다. 지도(map)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했다. 모두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사도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부분에 있는 것을 전적으로 뒤집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해놓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거나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22-24)”고 합니다.

율법은 원래가 그것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법칙이자 방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라는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그 복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럴만한 원인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과율(因果)인 것입니다. 하나의 결과는 그 원인을 꼭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기만 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하나님의 참으로 신비로운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어떤 결과에 대한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으로서 믿음이라는 법칙을 이런 의미에서 행위와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확신 쪽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 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답들은 다 훌륭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나의 구원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그토록 집요하게 지적하는 율법이요 행위인, 제 표현으로는 인과율(因果律)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 그 자체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을 점검하는 법입니다. 그 결과가 분명치 않아 보여도 그 원인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키 위해 인과율(因果律)을 동원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자신을 뒤져보아도 자신의 구원결과를 확증할 원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의 분위기에 늘 싸여오신 분들은 중간에 믿으신 분들 같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를 영접했다느니, 눈물을 흘리며 울며 회개했다느니 하는 등등의 원인으로 도용할만한 체험조차 없기에 당황해집니다. 인과율 외에 믿음의 법칙이 있음을 모르고 있기에 자신의 구원을 인과율로 점검할 수 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당연하게도 구원 얻을 이유도 결과도 없었음만 확실해집니다.

성경이 구원이란 결과를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원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쪽에서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는 우리가 갖게 했습니다. 이런 법칙도 있습니까? 놀라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전 1:18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원인은 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은혜'라 하고 '믿음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자랑이라는 리트머스시험지를 갖다 대고 분별합니다. 즉, 네 구원에 대한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표시가 리트머스시험지에 나타나면 '너는 지금 믿음을 원인으로 집어넣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 댓가로 얻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같이 믿음을 그 원인으로 집어넣을 때는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 대신에 믿음을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단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법칙은 행위의 법칙을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편을 「율법」, 「행위」, 「자랑」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한편은 「은혜」, 「선물」, 「공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행위」의 반대되는 말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율법」의 반대어로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후자의 영역에 속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율법 외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그것은 '은혜다', '복음이다', '공출이다', '믿음이다'라고 이해하기에 앞서 「율법이 아닌 것」이라고 일차적으로 그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20분

1. 로마서 3장 21절의 「그러나」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앞뒤 구절이 어떤 분위기가 대조 됩니까? \_\_\_\_\_
2. '율법 외'라는 말과 율법을 폐지하거나 율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말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_\_\_\_\_
3. 율법이란 원래 어떤 원리를 가진 법칙이며 은혜란 어떤 원리를 말합니까?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5분

1. 율법, 행위, 자랑과 은혜, 선물, 긍휼이란 단어들을 서로 대칭되는 것들끼리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왜 율법은 자랑으로, 은혜는 긍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까? \_\_\_\_\_
2. 구원을 정의할 때 율법이 아닌 것으로 그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_\_\_\_\_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두려운 터널을 막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원리에 의해 이런 복된 소식이 가능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①】**

- 성경 본문 : 로마서 3:21-31
- 요 점 : 행위적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서의 믿음

이번 시간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인 믿음의 성격을 성경적으로 규명해 보는 순서입니다. 뜻밖에도 우리 속에 성경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 이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기독교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세에 관한 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일이며 영에 관한 것이기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영광, 내세, 창조주 하나님, 영물인 천사, 사단 등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감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을 때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자연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 오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주의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신비주의와는 전혀 다른 「신비함」을 포함하는데 성경은 자연인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3:5)”고 합니다. 즉 언제나 성령께서 증명해 보이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존재는 이해 불가능,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요 3:8)”라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결과로 보아 알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키는 사람’ 이라고 답할 뿐입니다. 이 말은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 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납득할만한 설명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애써서 도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 벗었구나’, ‘내가 고아구나’, ‘내가 흠탕투성이구나’를 알고 나서 생기는 결과가 회개입니다. 눈이 있어야 자신이 고아인지, 더러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구나’를 아는 것, 혹은 ‘내가 고아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영의 감각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이고 당연한 결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회개가 생기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 순서는 인식의 순서이지 사실의 순서가 아닙니다.** ‘주여!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미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속에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어떤 정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연인은 결코 거기에 닿지 못하는 불연속선을 그

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자연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 올 수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대차대조표이지, 내가 어떻게 ‘전자에서 후자로 오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속을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죄 값을 치루고 넘어 온다는 설명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개인이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의 자리’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신비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지키고 이행하여서 드디어 합격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사람이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다' 라는 얘기는 바로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닌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를 뜻합니다. '구원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 행위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려고 율법 아닌 것, 행위 아닌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하겠기에, 성경은 그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Trust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믿자’하는 얘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그는 안 믿겠다고 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그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라고 단정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에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가 얻은 구원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그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조건만 내놓으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텐데,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구별짓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같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입니다. 내 결과에 대하여 내

원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선언은 구원을 얻을 조건이 있었거나 받을만한 무슨 가치가 있어서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방법으로써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통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10분

1. 기독교는 신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비함을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어째서 신비함을 가졌음에도 신비주의는 아닙니까?\_\_\_\_\_

2. 성경이 구원과 관련지어 사용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무엇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단어입니까?\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5분

1. 성경이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우리의 출생과 비교하여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까?\_\_\_\_\_

2.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다음 문장 중에서 본문에서 다루는 믿음의 개념에 적당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아슬아슬한 절벽 고갯길을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어린 아이의 신뢰적인 자세
- ②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 ③ 이번에 던지는 율가락은 분명히 '모'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
- ④ 비행기보다 기차가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 ⑤ 어느 것으로도 불충분하다.

믿음이란 뜻을 알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마음을 일단 누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도움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굳이 전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부록II (전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II 전 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결론 짓게 되면 **‘그러면 전도는 못하게 됩니다’**라는 질문이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이 전도의 문제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기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종종 ‘성경기록은 다 신화이다. 희랍신화 같이 표현되어 있다’ 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비에 대하여 박형룡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답변하기를 “이 사람아, 사람이 석양에 지는 해를 보고 ‘석양의 해가 서산마루에 누엿누엿 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직사광선이 직립한 인간의 눈동자에 수직으로 비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해가 서산 마루에 왜 걸리겠어요? 어떻게 될려구.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사학에 관한 문제이며, 한 사람의 상상력과 정서의 수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의 표현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잘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택한 자,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자’라고 알린다면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할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없으면 천국에서 상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로 대접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나 안하나 똑같네.’라고 거꾸로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놓고 싶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은 묻지 말고 놀으십시오. 놀다가 많이 얻어맞고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이해해야 할 영역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조건이 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것보다 더 좋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 뜻밖에도 ‘전도’가 굉장히 기술화 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자들이 완전히 테크니션이 된 것 같습니다. 전도인들이 여러 가지 성공의 확률이 높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잘 하는 것, 테크닉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성’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성’이지,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는 법(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성경이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방법으로 해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도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제일 나쁜 방법인 셈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한쪽은 전쟁의 달인(達人)이요 한쪽은 소년입니다. 한쪽은 거대한 힘과 장비를 갖춘 자요. 한쪽은 왜소하며 거기에다 아무런 살상도구도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김으로 다윗의 실력이 골리앗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군사력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임을 분명케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야말로 다윗 자신에게는 승리할 인간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란 논쟁이나 기적적 증명이나 또는 권세 같은 것이 전혀 배제된 평범한 신자의 권면이기에 사실 생명을 소생시키는 방법으로는 가장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 지혜자나 능한 자를 뽑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 하기 때문이랍니다. 즉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값없이 주셔야 얻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모든 구원을 얻은 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전도란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구원의 사역이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행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은혜로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런 데에 나를 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

## 【믿음②】

- 성경 본문 : 로마서 3:21-31
- 요 점 : 구원 얻은 자의 신앙 성숙을 위한 믿음

성경에는 믿음이란 용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함으로 신자들의 구원문제는 혼란에 빠져들곤 합니다. 무엇이 혼동되기 때문인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 본문 이해

성경은 자연세계에서 영원세계로 넘어 오는데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으며,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후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Trust)’ 이 동원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었지만 구원을 얻은 후에는 구원을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가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율법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등, 나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구원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얻은 자의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자기가 믿어서 넘어오고, 넘어와서는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즉, 이들을 바꾸어 적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세계에서 영원세계로 넘어오는 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눈에 힘을 주어야 된다는가, 어떻게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결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의 믿음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믿음을 믿음 A 라 하고, 후에 결과로써 갖게 되는 믿음을 믿음 B 라고 합니다.** 믿음 A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써의 믿음이라면, 믿음 B는 눈을 떴기 때문에 보아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맡겨야 하는 믿음으로 보

통 우리가 쓰는 믿음입니다. **믿음B는 믿음A의 결과입니다.** 믿음A를 얻은 자만이 자신의 발로 출발하고 성장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 그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걸을 것인가는 곧 그의 성장에 비례합니다.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비례하여 그의 성장이 진전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1: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즐겨 사용하는 Trust라는 의미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의 믿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지는 신앙상의 감각과 인식과 경험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A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이지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일의 출발이나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또 하나의 출발을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새 인생의 출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자리로 넘어 온 이후의, 즉 출생 이후의 성장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신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이 믿음은 구원의 결과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관한 문제이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래서 구원을 얻었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와 같은 인식입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믿음은 성장을 향한 출발지점이지만 구원을 얻은 원인이나 근거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믿음A가 아니라 한 걸음 진전된 믿음B를 갖게 된 성장영역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성

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많이 아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율법을 따라야 하고 요구하는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단 후자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전자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들어와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한없이 어린 아이로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배우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의 최대의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혼돈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구원을 얻는 믿음A는 자기가 갖고 있고,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할 믿음B는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A는 필요 없는데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가지고 있고, 믿음B는 안 갖고 있습니다. 넘어오는 방법에 관해서만 붙들고 있고 들어와서 마땅히 성장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숙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옳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15분**

1. 다음 문장 중에 믿음A에 대한 것이면 A, 믿음B에 대한 것이면 B라고 적으십시오.

- ① 구원을 얻는 문제이다.(     )
- ② 자연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넘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
- ③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     ) (     )
- ④ 신앙생활을 출발케 하는 출발점이다.(     )
- 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
- ⑥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목표를 갖게 된다.(     )
- ⑦ 신자가 된 다음에 요구받는 문제이다.(     )
- ⑧ 신앙 성숙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문제이다.(     )
- ⑨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
- ⑩ 내가 노력할 수 없는 부분이다.(     )

2.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 얻은 자로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별개의 상황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_\_\_\_\_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5분**

1.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한 연구소에서 태교를 담당하는 연구원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원, 그리고 아기를 갖고 있는 산모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 중에서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고 믿음A·B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태교 담당자 :** 이번에 태어나는 아기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분위기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아기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교육자 :**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이 아니라 태어난 후 자라는 과정이지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너무 매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진정한 표현을 위하여 부모의 간섭과 지도를 될 수 있는 한 배제해서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의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모 :**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엄마의 출산 준비에 딸린 것이지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탄생을 결정하겠어요. 자라나는 것도 그렇지, 나는 내 아이가 부모들이 자신을 향해 갖는 정성, 계획, 소망 등을 기억하면서 자라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겠어요?

☞ 믿음에 이런 이중적 의미가 들어 있음에 놀라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성격이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신앙 성숙에 기초가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움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그 믿음을 근거로 성장해 가는 믿음을 구분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구원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구원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부록 「구원의 3시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Ⅲ 구원의 3시제**

많은 신자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즉 완료형적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인 Westcott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정거장에 이르자 어떤 여자가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자는 아주 뜨거운 전도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합석한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이 여자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라고 Westcott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생각하기를 ‘아! 이분은 구원이라는 말조차도 들어 보지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Westcott 박사는 정색을 하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과거형(I was saved)으로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형(I am being saved), 아니면 미래형 (I will be saved)으로 묻는 것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온 완료형적 구원만을 확보해 놓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완료형적 구원의 차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I have been saved’라고 하여 늘 완료형 과거시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9-10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여 ‘We Shall be saved’라고 미래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된 것이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라면 여기서 미래형으로 표시된 구원이라는 의미는 수준적 의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원’이란 단어를 써도 신분적으로 의인된 상태를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라 수준적인 성결과 거룩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후자는 완성적 차원, 즉 온전한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신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커다란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에 익숙한 자들이요, 죄와 아직도 친한 자들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수준적으로 거룩하고 관찮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아무리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수준적으로 거룩케 되고 성결케 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20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준적으로 성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죽음에 놓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는

우리를 얼마나 더 거룩케 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 목숨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그것으로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느냐고 비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9-10에 'Much mor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더욱 더 우리를 위해 간섭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10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온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 생명을 주는 데는 풍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일단 있는 것은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보면 아주 작고 미미하며 풍성함이라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어 얼마 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아서, 즉 생명이 주어지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활동을 보면 전부 씨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햇볕이고, 바람이고, 비고, 좋은 토양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간섭으로 씨인 우리는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요구하는 책임은 이제 우리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며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발맞추느냐. 하는 차원에서 책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 속에서 드디어 풍성한 아름다움의 자리에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에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햇볕 주시고, 좋은 토양이 되셔서 색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 【믿음③】

- 성경 본문 : 로마서 3:21-31
  - 요 점 :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 소망사항, 자기최면, 확률
-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는 드디어 믿음생활이란 신앙의 영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방해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 혼동을 주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본문 이해

흔히 신앙을 **자기의 소망 사항**으로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은 물건이나, 일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은 이러한 것을 이루시는 대상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신앙의 내용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내용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성**에 대하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 사항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키가 커야겠습니다. 키를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니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채권자가 하는 짓입니다. 맡겨두거나 빌려준 것도 아닌데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꼭 해주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의지력을 가진 인격자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지 무인격적인 것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인격적인 것이 대상이 될 경우는 「사실」이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이고 당연한 결과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어떤 일을 의지적인 힘으로 하고야 만다는 신실성입니다. ‘하나님 내일 권투시합이 있는데 제가 이기도록 제 손을 20cm만 길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는 자기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적인 요구도 아니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회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100번 외치거나, 혹은 마루를 치면서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치면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사고력을 마비시켜서 회의감이 억누르고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설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



함 사건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도박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드디어 납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납득 당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행복할 만한 분인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이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예’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미쳤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득을 당했으면, 그럴까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할 만한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흔히 신앙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언제나 전제조건이다. 일단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자에 앉을 때에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고 앉아 있거나 천장이 내려앉지 않을 것을 믿고 앉습니다. 일단 믿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지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서 써야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서, 즉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믿어 보시면 구원이 온다고요,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요’라는 식으로 구원도 축복도 자기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 공부한 대로 믿음이란 결과로써 그다음의 새로운 생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결과시킨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대하여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그것은 통계이고, 확률이다’라고 날카로운 비평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고 앉은 것이 아니라 척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아직 의자가 안 썩었구나’라는 사실을 척 보면 아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천장이 내려앉지 않을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정해진 순서를 따라 시청으로 갑니다. 정해진 순서를 이탈하여 괜히 남산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궁색하게 써야 했는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은 뒤 활용해야 되는 믿음이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수준 높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재미를 맛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5분

1. 본문에서는 다음 단어들로서 믿음에 대한 혼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단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보고, 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 보십시오.

- 소망사항 \_\_\_\_\_
- 자기최면 \_\_\_\_\_
- 확률 \_\_\_\_\_

2.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정리를 위한 질문 10분

1.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하여야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까? 대표적인 예로 신앙생활 중 기도하는 내용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자!”라는 신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줄 아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믿음④】

- 성경 본문 : 로마서 3:21-31
- 요 점 : 믿음을 오해시키는 철학적 사고 - 실존주의

생각을 위한 질문 10분

1.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각각 어떻게 느끼십니까?

☞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실리주의적 사고방식은 신앙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영역을 왜곡시킵니다. 어떤 형태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분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까?** 아무래도 성령님을 찾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곤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은 몹시 엄한 아버지 같이 생각되고, 예수님은 자상하신 어머니 같이 생각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가끔 매를 드시는 아버지를 치마폭으로 막아주시는 어머니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도 말하듯 성경은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너무 예수님 중심적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신 오직 한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모아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려는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실존주의란 한마디로 하면 모든 가치의 척도를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실존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피해는 상당히 큼니다. 나에게 상관없는 일은 진리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는 주의가 실존주의입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고,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체계는 묘하게도 경

험위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몹시 불쾌해 하는 습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습게도 하나님을 가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을 제시할 때 구원을 사실로써 인식합니까, 혹은 경험으로써 입니까? 구원이 사실이기 때문에 좋습니까 아니면 경험이었기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나은가라고 물으면 양쪽이 전부 나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는 쪽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철학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철학에 젖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곧 자존심 때문입니다. 즉,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느냐, 즉 나에게 축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이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낮은데 머무르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경험 위주로 구원 문제를 바라보는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사실에 근거하며 이를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고,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5분

1.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섞어 가면서 부르는 이유는 무슨 마음에서 입니까?\_\_\_\_\_

2. 실존주의가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형태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5분

1. 우리의 경험 대신에 신앙생활의 토대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합니까?\_\_\_\_\_

☞ 신앙생활에서는 모르는 것을 새로 배우는 문제 말고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정리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본성적인 생각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빼내야 되는 사고방식이 있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 【구원의 확신】

- 성경 본문: 로마서 3:21-31
- 요 점 : 생명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원

생각을 위한 질문 10분

1.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5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

---

☞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믿음1,2’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생겨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기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믿음3,4’에서 다루었습니다. 올바른 구원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이해

구원을 확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봅시다.

A: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B: 네, 확신합니다.

A :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B: 성경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절들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앙상태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구원 확신법은 다음과 같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이후에 살아야 되는 신자로서의 책임을 구원을 확인하는 지점에 대입하는 잘못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신자로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은 자에게 요구받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안 해 준다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신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란 도덕과 윤리적인 선한 행동들로 이뤄진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신자도 만족한 구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걸려야 도달할 가능성이 겨우 있는 구원 얻은 이후의 긴 싸움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확인을 위해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살피면 살필수록 거기엔 십자가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의로움은 없고 여전히 죄투성이인 자신의 부족함만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성숙한 신앙생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시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체였던 내가 갑자기 그것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데 대한 확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각할 수도 없는 부분을 감각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이 눈을 뜨자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한 것도 싫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이고, 둘째는 ‘네가 정말 소경이었느냐?’ 입니다. 둘 중의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예수의 기적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으면 소경이 눈을 떴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뜨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래 소경이 아닌 그가 눈을 감고 있다가 괜히 떴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우기려고 묻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대답을 정직하게 했다가는 화를 입을까봐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안보였는데 이제는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참으로 정확한 대답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죄인과 구원을 얻은 중생한 자와의 차이는 감각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감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촉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촉각이 있는 것 같이 영생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들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체가 20초 내에 100m 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과 같이, 성능으로써 자기 됴됨이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능이 아니라 시체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체는 ‘가야 한다’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법입니다. 시체와 같이 마냥 누워서 가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는 시체가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이러다가 내가 터지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놔두시지 않는다는데”라고 생각해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당신은 참 딱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내 새끼손가락이나 믿으시오’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죄가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햇빛을 향하여 자라나게 되어 있는 주광성 식물이 빛이 오는 방향을 향하듯 신자는 하나님께 향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나 영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들의 감각이 일단 반대편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당 같은 데는 안 간다. 나라면 염라대왕에게 가서 장기두는 게 더 낫다’와 같이 늘 거꾸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도망을 가면서도 손 하나는 걸어 놓든지 귀 하나는 떼어 놓고 가는 법입니다. 도망을 하면서도 한 눈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상한 위치에 와 있을지라도 자기가 의도해서 하나님께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 이러한 최초의 인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고 또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들로부터 어쨌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생애와 그 이후의 생애를 바꾸어 놓은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최초의 인식, 최초의 경험,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체계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기초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의 기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결과로써 생긴 첫 감각일 뿐입니다. 감각하는 나는 이미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든지, 회개했다는 것은 살아난 첫 증거에 불과합니다. **살아서 맞이하게 된**

**첫 경험이지 살아나게 된 조건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첫 감각에 불과한 것이며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는다.’ 보다 ‘자신이 너무 엉망이라 나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구원할, 택한 자들에게만큼은 분명히 구세주이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감각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0분

1. 소경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그에 해당되는 신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_\_\_\_\_

\_\_\_\_\_

2. 구원 얻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겨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인식으로서 자연스러운 신앙경험은 어떤 것입니까?\_\_\_\_\_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0분

1.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입니까?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①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다른 신자와 견주어 본다.
- ② 주일날 예배에 안 가고 등산 가면 마음이 편안치 않고, 사고를 당할 것 같다.
- ③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았던 실적을 조사해 본다.
- ④ 누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싫고, 변호하고 싶어진다.
- ⑤ 신앙적으로 잘 못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 ※도움말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는 방법으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이나 내심으로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있어서는 올바른 정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록Ⅳ 「정리가 필요한 구원의 확신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Ⅳ 정리가 필요한 구원의 확신법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독특한 사건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내용은 **초월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특별히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다거나 어떤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혼자만 구출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귀신이 말하거나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혼절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 사람이 기적과 신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기독교에 입문하도록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자체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거나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기독교에서 뿐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 즉 마귀에 의해서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체험이 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귀신의 목소리 등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을 가지는 것은 구원을 얻은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성경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여, “영접하는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객관성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보고 나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식 이하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객관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이것을 구원 확신을 위한 자기 논리로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중국집이 어디죠?’ 약국 옆에 있습니다. ‘약국은 어디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중국집 사이에 있어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부 허공에 떠 있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을 뿐이지 믿게 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가 없어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도 다 믿어야 되는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둘 다 객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 할 때 그 사실 자체가 객관성이 없으면 다른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구원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둘 다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라도 구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논리로 생각하여서 확인될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날 내가 말도 안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객관화까지 하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놀라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논리성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있는 한 '내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나는 바보는 아니지만 거룩하게 미친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을 하려다가 잘 안되니까 미흡한 것 같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까지 주장해서 구원의 확실함을 제시하려는 생명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감격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놀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납득되는 객관적 증거가 아님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 【언제나 동일한 구원의 길】

○성경 본문 : 로마서 3:25-28

○요 점 : 예수님 이전의 구약 성도들이 구원에 이른 길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정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겨나는 하나의 궁금증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었겠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타당성 있는 질문으로 구원에 관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이를 위해 다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이해

우리가 구원 문제를 이해하는 순서는 흔히 「구약 -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 신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하는 문제에서 혼란을 갖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과 아담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다가 오류에 빠진 세대주의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율법이었다. 신약시대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시대에 따라 구원 얻는 방법의 변천과정을 분류하는 견해를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라고 요구하셨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지키기를 요구하셨고 그것으로도 구원을 못 얻자, 결국 믿음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갑시다. **구약 - 십자가 - 신약이라는 순서는 시간의 배열에 의한 것입니다. 이 시간 배열은 계획 배열과는 다릅니다.** 계획 배열이라는 말과 시간 배열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과 실제로 시간과 함께 일이 진행되는 것과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 속에 집터를 정하고 설계도면을 그리고 시공을 하는 등 순서를 바로잡는 계획 배열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에 들어가면 이 순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짓기 이전에, 설계를 하기 이전에 ‘돈을 모은다, 인부를 모은다, 트럭을 준비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일부터 하게 됩니다. 이같이 일을 시간 속에서 진행시키는 것과 계획 속에서 진행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이 시간 배열과 계획 배열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성패에 따라서 구약을, 그리고 성패에 따라서 다시 십자가를 준비하는 식으로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셨다가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더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고 해서 그 즉시 ‘척 나타났다’ 는 뜻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겠다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결국 빛이 있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

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저기에다 집을 지어야겠다’고 걱정하시고 땅을 파 보니까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면 펌프로 물을 퍼내서라도, 원래의 계획에 없었던 과정을 쓰시더라도 결국 그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부작용도 다 처리하시고는 마침내 집을 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실패하자 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미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볼 때에 한번 세우신 계획은 꼭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창조의 작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담 창조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그 창조의 완성의 마지막 관문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완성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아름다운 방법으로 대신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계획 아래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제사 제도를 보면 더욱 명백해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예수의 사역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지라도 구원 얻은 사람이 가지는 마땅한 생각과 심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생각과 심정이 잘 표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제사제도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사드릴 때 아무 생각없이 그냥 제사형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즉 참여했다는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제도에는 죄의 삯이 사망이기에 그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는 생명의 죽음이 필요했음을 양이나 소를 피흘려 잡음으로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심정을 가져야 하며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양이나 소가 내 대신 죽었다는 심정을 가지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분명한 사상과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절망적 심정이고 또 하나는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내 대신 누군가 심판을 받아 죄값을 치루어 주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대속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생명보다 못한 양이나 소가 죽었다고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동물이 사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매년마다 이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으로 그 불완전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이 대신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앞으로 인간보다 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할 것임을 믿고 내 대신 죽어주는 그 사실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의 명백한 성격과 본질을 알았을 뿐더러 자기 대신 죽어줄 그 생명을 의지하는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할 때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와 같이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며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 : 12).”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며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사상을 집약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시대에 따라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실행했다가 실패하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

2. 제사제도에 포함된 두 가지 사상은 무엇 무엇입니까?

---

3. 동물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

#### 정리를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길은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동일하며 또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 얻은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한 구약시대 성도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본 신약시대의 성도나 동일한 사상과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상과 심정은 무엇입니까?

---

오늘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신자들이 구원 얻는데 있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행위가 될 수 없음을 역사적 실제상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움말

타락 이전에 아담이 구원 얻을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를 공부해 보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가야만 했던 신앙의 목표를 선악과 금령(禁令)의 말씀 (부록 V)을 통하여 살펴보십시오.

#### 부록V 아담의 구원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시기, 즉 아담에게도 구원 얻는 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 질문이 가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직접적인 성경의 설명을 찾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르고 깊이 이해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주신 말씀 중 선악과 금령(禁令)의 말씀은 아담의 인생 과정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기에 죄로 인한 심판의 상태로부터 구원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담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와 현재의 상태와의 큰 차이점을 찾아보면, 지금의 상태는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처음의 인간은 죽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던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지 않고 있는 한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에 주어진 생명은 조건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에는 죽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바로 이런 자리로까지, 이런 수준으로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선악과 나무 옆의 생명나무를 보며 이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최종 목적지는 처음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원래 가야 했던 완성된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담도 처음 지음 받은 위치에서 그가 가야 했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한 힌트를 제시하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1:4)."

###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이해】

- 성경 본문 : 로마서 3:28 - 4:25
- 요 점 : 믿음이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

#### 생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약성경이 구약의 인물을 등장시킬 때는 지금 말하고 있는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면 때문인지 알아보시다.

#### 본문 이해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하여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동명사형:행위)이 아니고 믿음(명사형:은혜)이라고 했습니

다. 이제 그 설명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을 인정한다면,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을 잘 설명하기 위해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롬 3:27)”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율법의 다른 한 모습으로 믿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행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에서 육신이라는 단어 옆에 3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밑 (각주)을 보시면 **‘혹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과 각주의 내용 두 가지 모두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다음의 2절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때, 밑에 있는 각주의 글귀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즉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말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육신으로 얻었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 만일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4:1-2)”라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4:3-5)”**라는 대표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아브라함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 즉 성경이 아브라함 사건을 기록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 얼마나 행위와 관계가 없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샅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샅」은 땀가와 관련됩니다.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기 마련인데, 땀가, 즉 샅은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입니다. 자기



에게 원인을 두고 자기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 샅입니다. 샅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댓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댓가에 의한 것이라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받을만한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이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합니다. 샅이 아닙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며, 한마디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위란 내가 얻은 결과가 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연히 나에게 떨어지게 된 「법칙」입니다. '네가 구원을 얻을만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아니다. 오직 은혜로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6절-8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라고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결과를 놓고 볼 때,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4:7-8)."**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고, 불법을 사함 받은 것이 지, 불법이 사해질 믿음을 먼저 내놓고 마땅한 일을 한 것, 즉 회개한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받고, 마음에 회개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창세기 17:10-14절에 나오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6절에 나옵니다. 즉, 할례를 받기 이전에 구원을 얻었기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음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17-18절을 보시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그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도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음이 증명됩니다. 이 증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일부러 할례 전에, 율법 전에 구원 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구원은 **'내가 나를 완성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나 아닌 분에게 맡기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확실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인하여 납득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이냐,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와 그 분의 높으심에 대한 행복이요 납득이냐'**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의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그의 보좌와 그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의 약

속에 근거하여서만 우리는 구원 문제를 납득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_\_\_\_\_

\_\_\_\_\_

2. 로마서 4장 6절-8절에서 복이 있다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_\_\_\_\_

3.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할레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_\_\_\_\_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 혈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브라함이 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_\_\_\_\_

\_\_\_\_\_

• 여기서는 구원은 인간 쪽에서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배운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사람은 자기 행위의 법칙에 훨씬 익숙해 있으며 내 행위 없이 어떤 결과를 가지는 것은 무언가 어색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 아무 말없이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이 민망해서 자꾸만 무엇을 해야 한다. 비록 내가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면서 내가 뭘 해야한다. 내가 뭘 갚아야 한다. 또 미리 값을 치뤄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윤리 차원에서 상당히 신사적이요.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하면 구원은 우리가 값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1억원 상당의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10원짜리 사탕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나와서는 늘 생각하기를 10원 주고 이 선물을 샀다고 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그 얼마나 큰 모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했으므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물건값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 달라고 조르고, 사 주면 뻔뻔스럽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또 어린 아이는 물건을 원할 때, 자기가 값을 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그 하나 가지고 무조건 다 달라고 졸라댁니다. 또한 공짜로 받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비유컨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누리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 **【경건치 않은 자의 구원】**

○성경 본문 : 로마서 4:4-8

○요 점 :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의 불의한 수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 그 믿음이 행위로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렇게 얻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이제까지 다뤄온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근거로 한 구원관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과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배제한 하나님 단독적인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과를 통하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본문 이해

「믿음」은 나의 조건이나 원인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만들어낸 단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율법 받기 전에 구원을 얻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불의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때는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는 과정, 둘째,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의로워진 시점, 셋째, 불의한 상태로 있는 시점,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이겠습니까? **정답은 세 번째, 즉 불의한 상태로 있는 그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잘 합니다. 불의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얻은 구원의 조건이 그에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 이야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제 앞에 시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체에게 100m 정도 떨어진 저쪽 고목나무까지 20초 내에 가면, 너를 살려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그 시체를 어디에서 살려준 것입니까? 그 시체는 출발을 해서 가는 동안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혹은 목적지까지 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참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시체가 어떻게 말을 알아 들으며, 어떻게 움직여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구원문제에 있어서도 오해하는 것은 시체가 살아나기도 전에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체는 일단 살아나야 합니다. 다리가 하나 밖에 없거나, 혹은 다리가 없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굴러서라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구원은 사람에게 조건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구원은 시체에게 생명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의 본성과 관계됩니다. **즉 인간이 시체로 출발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존재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튼튼한 시체와 병든 불구자와는 어느 쪽이 더 빠릅니까?’, ‘죽은 나폴레옹과 동네의 강아지 중,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들은 죽었고, 후자들은 살았기 때문에 후

자가 더 빠르고 더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즉 경건해질 각오를 했다든가,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각」이 있기 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신자들은 ‘내가 저쪽 상수리나무까지 달리는데 있어서 늘 5등 안에 못 들더라, 늘 뒤처지더라, 나는 아마 시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오해이며 「병」입니다. 달리는 데 있어서 등수 안에 들어야 하는 것은 살아난 다음 단계의 일이지, 구원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 얻은 후의 성장에 관한 문제와 구원 얻는 문제를 혼동합니다. **성장부** **분에서 부끄러운 꼴을 당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회의한 나머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의 변변치 않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해서 5등 내에 들어 가지고 다시 오지요’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밖의 사람들과는 달라서 ‘나는 역시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곤 오늘 또다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고, 다시 오고... 이런 짓을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 문제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 6절 이하를 다시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6절)”와 7절부터 있는 말씀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4:7-8).” 이 말씀에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되어있지 않고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성장단계에서는 회개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러한 원인이 없이 그냥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는 ‘네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거라’라는 다짐을 우리에게서 받습니다. 그런 후에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내가 구별할 줄 아는 그 안목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장영역에서의 용서**와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축복들, 즉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서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대목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에서 쓰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에서 모두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며 「용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두 영역에서 그 의미가 다르고 「용서」도 두 영역에서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으나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록함으로써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계획이요, 약속이요,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왜 시체에게 살려줄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부당한 일이 됩니까?

\_\_\_\_\_

2.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문제로 다시 회의를 빠지는 이유는 무엇을 혼동하기 때문입니까? \_\_\_\_\_

\_\_\_\_\_

3.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회개란 구원을 얻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기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고 난 후의 회개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_\_\_\_\_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 1과에서부터 공부해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다음 ( ) 속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

- ① 죄인 ② 율법 ③ 믿음A ④ 자존심 ⑤ 조건 ⑥ 지팡이 ⑦ 영  
⑧ 예수 그리스도 ⑨ 경험 ⑩ 십자가 ⑪ 믿음B ⑫ 감각 ⑬ 유대인  
⑭ 불의한 ⑮ 장님 ⑯ 은혜 ⑰ 자랑 ⑱ 선물 ⑲ 성숙 ⑳ 하나님
- 

- 1) 죄란 하나님 앞에서의 ( )이다.
- 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처절하게 표현된 곳은 ( )이다.
- 3)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그 ( )이 죽어 있는 상태이다.
- 4) 인간의 본질은 ( )이다.
- 5) 내가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 )
- 6) 내가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법칙. ( )
- 7) 구원은 은혜요, ( )이다.
- 8) 믿음은 ( )을 아는 것에 비례한다.
- 9)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이고, 구원 얻은 이후에 신앙의 ( )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이다.
- 10) 기도는 ( )께 드리는 것이다.
- 11) 실존주의는 구원을 사실이 아닌( )에 근거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 12) 회개는 구원에 대한( )이 아니다.
- 13)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 )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 14) 구약의 백성들도 ( )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었다.
- 15) 자기가 얻은 구원을 (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적 차원의 믿음인 것이다.
- 16) 구원을 얻는 시점은 ( ) 상태에 있을 때이다.

**2. 다음 문장의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

- 1)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다고 출발하는 까닭은 그것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 )
- 2)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해 보이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다. ( )
- 3) 복음을 설명할 때 지옥, 저주, 심판이란 부정적인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 )
- 4) 이방인과 유대인 중 누구도 구원 얻기에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 )
- 5) 유대인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장님이란 사실을 드러내 보였다. ( )
- 6) 구원 얻을 때의 믿음과 구원 얻은 이후의 믿음의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 ( )
- 7) 믿음이란 단어는 일차적으로 행위가 아닌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
- 8)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란 행위에 의한 것이다. ( )
- 9) 소망사항, 자기 최면, 확률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다. ( )



10)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라는 식의 설명은 믿음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아니다.

(    )

11) 구원을 얻은 뒤에 활용해야 되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 (    )

12) 내가 신앙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구원 받지 않았음을 드러내주는 증거이다. (    )

13) 회개는 구원 얻은 자에게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    )

14)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까닭은 율법과 할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    )

•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살리셨다면 이제 살아난 자들에게 구원은 더욱 취소될 수 없다는 성경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감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 【구원의 확실성(1)】

- 성경 본문: 로마서 5:1-5
- 요 점: 신자가 얻는 구원

### 생각을 위한 질문

1.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러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그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구원의 문제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난 과에서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지 로마서 5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본문 이해

로마서 1장-8장까지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1장 4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고, 5장-8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4장까지가 ‘칭의’의 대목이라는 데는 시비가 없지만 5장-8장까지가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1장-4장까지 한 이야기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5장 이후로 연결해 가는데, 5장에서 처음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눈을 떴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그 구원과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로 나온다면, 성화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화’로 들어가지 않고 ‘영광’의 대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산맥이 있다면, ‘칭의와 성화’가 아니라 ‘칭의와 영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구성입니다. 먼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근거를 8장

---

까지 충분히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12장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의 다음에 영화가 오는 식으로 로마서를 구성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만큼 확실한 것인가를 확증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눈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눈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되고 경험되는 순서로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표의 관점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경험한 자에게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는지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목적지보다는 과정에 대한 간증과 감격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과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곳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화 단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3-5절 속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화 단계는 각 단계마다 영광에 이르는 자리의 한 과정으로 잠깐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대목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과정을 통과할 것이지만 결국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심이 초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구원이란, 길을 가던 조각가가 모닥불 속에 있는 불붙은 나무를 보고, **‘내가 저것으로 비너스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 조각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에서 나무를 꺼내야 합니다. 불에서 나무를 꺼낸 것은 비너스를 만들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나무는 **‘나는 조각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조각가가 불속에서 꺼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꺼낸 다음에 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에서 꺼내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니까 꺼낸 후에는 무엇인가를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너스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화의 과정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까지 뛰어가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시키고야 만다는 하나

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집념 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달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훈련자가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2시간 안에 20km를 달려서 목적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착순 몇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탈락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시간 안에 거기에 도달해야만 한다. 첫 번에 낙오하면 매를 맞고 다음날 다시 한다. 그 다음날도 안 되면 좀 더 매를 맞고 그다음 다음날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바울 사도가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에 관한 부분으로 로마서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_\_\_\_\_

2.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중간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는 시각으로만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구원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_\_\_\_\_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 구원의 단계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고, 오늘은 칭의된 자라면 영화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화과정의 문제인 신자의 불순종과 실패는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오늘은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정리해 볼 것입니다.

## 【구원의 확실성(2)】

- 성경 본문 : 로마서 5:6-11
- 요 점 :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증거되는 구원의 확실성

### 생각을 위한 질문

1. 자식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문제들도 자녀의 해산 때 겪게 되는 고통을 능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겪지 못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에서 더 헌신적인 모성애를 가지는 것이라는 데서 답을 찾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베풀어 놓은 것이 너무 엄청나고 큰 것이기에 나머지 세세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루신 가장 큰 희생과 또 그 십자가의 대상은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지 공부하기로 합시다.

### 본문 이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10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셨으니 살아난 자는 더욱더 큰 축복을 얻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1절-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여 오셨으니까 목적인 그곳까지도 너를 데려가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느 날 눈을 떴다는 것 뿐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원인으로 삼으사 결과만 우리에게 허락하는 방법, 즉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근거나 조건이나 요구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에게 아무 조건도 없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왔느냐? 네가 스스로 왔느냐? 남이 데려다주었느냐?”라고 할 때 **남이 데려다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1-5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

왔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다음의 6-11절까지는 거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 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난관이 있다 한들 그 일을 중단하 시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도달시킨 분이라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 가는 길을 막으리요’** 라는 것이 우리들을 납 득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 「십자가 사건은 방법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을 수행하시는 이의 열심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그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치른 것 으로 시작하신 분이 중간에 포기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로 화목시키기 위하 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거나 설득하셨거나 혹은 무슨 샘플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일입니 다. 대가를 친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 니라 오셔서 친히 땅을 파신 것과 같습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신 사건, 곧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이나 교훈이나 설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어 보내사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변화 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즉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에서 ‘우리가 아직 연 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 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길을 가다가 매우 추하게 생긴 어떤 남자를 만났는 데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성형수술 을 시켜서 굉장한 미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못생겼을 때에도 사랑하 여 결혼했거늘, 이제 다 고쳐놓은 지금에 와서 버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과 같습니 다. 처음부터 잘 생긴 상태에서 살다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생겼을 때에 도 데리고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잘 생겨졌다고 ‘나는 옛날이 좋다고 하면서 버릴 사 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법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으니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대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더니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그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절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화목시켰다면, 화목시킨 후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굉장한 열심과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당연한 논리성에 의거하여 그 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실패할 때에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부족감을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못 나가고 철야 기도도 못 나가고 등등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결벽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대가를 치루셨는가를 기억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

2. 본문을 참조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 )했더니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 )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 그와 ( )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 )

---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 )되었은즉 ( )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 정리를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야 만다는 것은, 무엇을 보아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이 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불성실함에서 오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한 셈입니다. 다음 과에서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원의 확실성(3)】

- 성경 본문 : 로마서 5:3-4
- 요 점 :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환난이 가지는 의미

#### 생각을 위한 질문

1. 신앙생활 중 특별히 환난이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두 가지씩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치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증거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념과, 이 사건에 대한 신자 쪽에서의 주관적 반응을 근거로한 구원의 확실성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자된 자가 겪는 여러 고난들이 오히려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해 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 본문 이해

로마서 5장-8장은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야 말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

---



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 어떨 것이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자주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기뻐하기로 합시다’라는 단순히 고무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투를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범적으로만 말을 한다면 당위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고 답답해집니다. 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그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즉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참는다(patience)’는 뜻이 아니라 ‘굴곡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컨스탄시(constancy)에 해당하는 말로 ‘견고성을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을 당할 경우에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혈압이 오르는 등 무척 당황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 이러한 당황함, 출렁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하다가 **‘악을 쓰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또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들추어 보게 됩니다. 환난이 이러한 자세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이 인내(constancy, 견고성을 유지한다)가 얻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인으로서 다 알 것 같고 능히 행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환난이 없는 평시에 드는 생각입니다. **정작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면 당황스럽게도 「할 수 없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그렇지 못하기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이 만들어내는 큰 기적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게 됩니다.

평탄할 때의 우리들은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내가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고야 맙니다. 이 대목이 환난이 하는 적극적인 일들입니다.** 환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비로소 생생히 기억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한번 내가 경험한 이 환난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건 내가 분명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증거란 소망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증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정도, 즉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보고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기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무릇 신자의 신앙수준은 결국 내세관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내세관이면 곤란하지만** 현실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내세를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신앙은 내세 지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끝(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주시므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척 미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만 죽음에 대하여 납득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자신은 안 죽는 줄로 알고 있고, 자기 남편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도 자신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합니다. 말은 자기도 얼마 못 살 것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내일 가서 준비하면 안됩니다. 닥친 다음에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란 언제나 그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음 나라가 있는 줄 아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내세가 있는 것을 모르니까 준비하지 못하지만, 신자는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인내(constancy)란 단어의 뜻을 정의해 보고, 다음 도표를 완성해 보십시오.

( ) → 자신의 모습을 확인(무능, 무기력) → 자신이 신뢰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 → ( )을 얻게 됨 → 다른 ( )에도 요동하지 않게 됨.

2. 환난과 연단은 신자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합니까?

---

#### 정리를 위한 질문

1. 신자가 경험하는 환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이 과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생활 경험을 통한 실제적 측면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의 나머지 구절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또 다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도움말

영어성경이 ‘연단’이라는 말을 성격, 인품을 뜻하는 ‘character’ 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신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격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 【대표원리(1)】

- 성경 본문 : 로마서 5 : 12 - 21
- 요 점 : 대표원리를 통해 확인되는 구원의 확실성

### 생각을 위한 질문

1.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미움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재벌 2세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와 비슷한 예는, 세습 왕조에서 개인의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왕자가 왕이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는 이유는 능력보다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_\_\_\_\_

---

오늘은 대표원리를 통하여 성경이 집요하게 제시하는 구원의 확실성 및 최종성을 배우겠습니다. 이전의 논증과는 달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원리와 원칙에 관한 것이지만, 믿음 논리성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본문 이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대표원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대표원리로서 구원문제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설명하는 대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죽는다는 것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는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가 살펴 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죽음이 임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가 죽을 죄를 졌다는 뜻인데 본인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지은 죄 이외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종이면 그 자녀도 태어날 때부터 종인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범법이라

는 행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과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는 부분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개월 된 사과나무와 3년 된 사과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3년 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3개월 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사과나무입니다. 이렇므로 죄인이란 행위적으로 죄를 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조건하에 있는 자라는 뜻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자, 저주 받을 자, 멸망 받을 자, 형벌 받을 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모든 자손은 죄인이라는 신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 아무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부모인 자는 자기가 잘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조상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후손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 봅시다. 한일합방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삼키운 바 되자 그 이후에 태어난 한국 백성들은 개인이 일본인들에게 빚을 졌거나 종으로 팔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일본에게 삼키운 바 된 민족이었다는 것만으로 모두가 피식민지 계급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상’이라는 말은 ‘대표’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도 ‘대표자’라는 것 하나가 그 공통점이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그 모든 후손을 절망과 멸망 속에 끌어 넣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한 대표자로 오셔서 그의 모든 자손을 왕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17절은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대표자를 놓고 범죄에 대한 영향력과 축복에 대한 영향력을 이와 같은 비교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 모든 신분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예외 없이 죽은 것을 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운 이 축복은 더욱 더 넘치고 넘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에서 제일 흥미있는 단어는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이 대표로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대표로 있기에 확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조상으로 가지는 자, 그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죄 지을 기회와 시간도 없는 신생아의 죽음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

2.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

#### 정리를 위한 질문

1.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까?\_\_\_\_\_

•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대표원리를 시각화함으로써 좀 더 분명한 이해에 도달해 보고자 합니다.

#### ※도움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법인 대표원리에 의한 연대성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인 아버지의 잘잘못으로 인해 그 가정 전체가 고난 또는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단위 또는 국가단위, 더 크게는 인류 전체의 연대성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 【대표원리(2)】

- 성경 본문 : 로마서 5 : 12 - 21
- 요 점 : 두 족보를 통하여 본 구원의 확실성

### 생각을 위한 질문

1. 고려 때, 몽고족이 침입하여 고려 왕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왕건의 후손들인王氏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王氏姓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姓을 비슷한 다른 성씨로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쉽게는 玉씨, 叢씨, 金씨 등이고, 어렵게는 盧씨로까지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전체 가문이 어려움을 겪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나 친척들로 인해 겪었던 이익이나 손해들을 한 가지씩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이번 사건은, 지난 과에서 살펴본 '대표원리'를 족보라는 실제의 예를 빌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현재 어느 가문의 후손인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 본문 이해

이제 대표원리를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만 여기에는 이중적인 족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3:23-28절에는 이 족보를 아브라함 이전 아담과 하나님까지 연결시켜서 보여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중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사람인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이중성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시 마태복음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족보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분명 사람인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시키기 위해 그의 후손인 예수를 그 아버지 되는 요셉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하면 예수가 단지 인간의 자식으로만 여겨질까 봐, 구태여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영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지만 마태복음 식으로 보자면 아담의 족보에는 없는 자가 되는 셈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죽을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여야 맞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전부 ‘...가 죽고, 죽고’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그 예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증명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의 족보를 폐쇄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 후손의 족보 속에서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이 가문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를 폐쇄시켰습니다.

이같이 아담 가문의 후손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태어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이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곧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제 여기에 다른 한 인류의 조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담의 족보를 폐쇄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족보를 여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영적으로 중생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태어난 자를 ‘중생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분이기에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46, 47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에서는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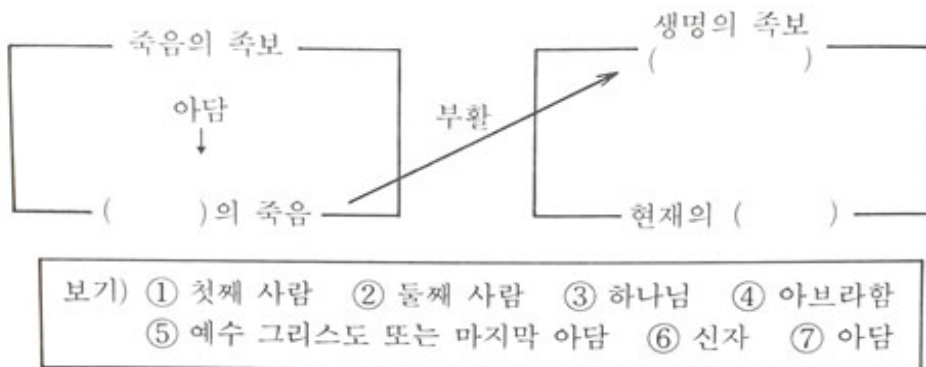
---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대표자로서 처음 만든 족보를 끝낸 마지막 아담이며 또한 죄인의 대표자였던 첫 사람의 족보를 끝내고 새로이 시작한 둘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한 통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만큼 이제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통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 사실인 것은 나에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아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때문에 최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신자는 그가 그 칭찬과 축복과 약속들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기묘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1. 다음 도표의 (            ) 안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입니까? 보기에서 고르세요.



2. 종의 신분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3. 아담의 족보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 다음 단어들은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까?

\*마지막 아담 \_\_\_\_\_

\*둘째 아담 \_\_\_\_\_

2. 두 족보의 대표자들의 삶이 그 족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를 ( )라고 합니다.

• 오늘은 족보를 통하여 대표원리를 이해해 보았는데, 이런 연대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확실성을 오해한 질문을 다루어 봄으로 우리의 변화된 분명한 신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움말

두 족보 사이에는 서로 건너가는 길이 없습니다. 즉 죽음의 족보에 있다가 생명의 족보로 건너가거나, 생명의 족보에 있다가 다시 죽음의 족보로 되돌아가는 일이란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죽음의 족보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다시 죽음의 족보로 건너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의 족보에 속한 자에게 역사하는 은혜의 성격 때문에 더욱 구원의 확실성을 든든히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족보에 속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은혜의 왕노릇에 대하여는 부록I(은혜의 왕노릇)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I 은혜의 왕노릇

우리가 아담의 족보 속에서 살 때는 죄가 왕노릇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즉 이는 단순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는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길,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궁극적인 죄의 자리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죄가 왕노릇하는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도록 놓아 두었다가 다행한 후에야 이에 따른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 결국의 자리까지 가기 이전에 간섭하는 것이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 길로 가면 큰일난다. 그러니 지금 나의 말을 들어라. 매를 맞고라도 고쳐라’**라는 것이 은혜의 뜻이지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즉, 망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보통은 ‘싸우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합시다. 원래 교회란 다 그런 것이지요 뭐’라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의의 씨를 묵인하고 키워서 결국은 몽땅 망할 때까지 두고 보자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불의의 씨는 불을 밝히고서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에 불법이 섞이기 이전, 그 세력이 아직 작을 때에 찾아내어 방지하는 것이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죄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릇된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거꾸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가장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가 하고 싶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가 곧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 【변화된 신분】

- 성경 본문 : 로마서 6:1-11
- 요 점 :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오해한 질문

구원에 관한 논리의 전개를 제대로 추적해 온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1절과 같이 **말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논리상 해보고 싶은 엉뚱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의 설명에 따라올 수 있는 이 같은 오해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 6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는 은혜의 참 의미를 규명하는데 집중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이 오해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 본문 이해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확인하자, ‘은혜가 왕노릇하는 구원을 얻고 그 완성의 자리에 들어선 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해도 좋으나**’ 라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하면서 바울은 6장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눈 팔고 죄의 자리로 도망을 가도 결국은 은혜가 나를 끌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저쪽(죄의 자리)에 가서 조금 놀고 있을 테니까 나를 끌고 가십시오’ 라는 식으로 혼동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요청도, 동의도, 협조도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 없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은혜가 동원되었는데 **그 바꾸어 놓은 방법, 과정에 대한 나의 인식, 나의 동의, 나의 협조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잊어버리고는 늘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족보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족보 사이에는 왕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는데 어찌 다시 다른 신분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오해를 사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신자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신분 변경과 실제 존재의 상태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분이 변하면 수준도 의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구원이 취소된 것인가?”라고 오해해서 신분도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것과 수준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준이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죄를 범하고 민망해서 ‘돌아가도 되겠네, 돌아가면 또 꺼내 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강패집단에 빠져있는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이 하는 행위를 보면 감옥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꺼내 놓았더니 **‘내 돈 주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또 꺼내 주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법이니(롬4:20),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짓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 그런 죄에서 구해 내셨는데, 어찌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신자에게 있어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것 \_\_\_\_\_  
변화되지 않은 것 \_\_\_\_\_

2.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 사이에는 왜 왕래가 있을 수 없습니까?

\_\_\_\_\_

3.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법이니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_\_\_\_\_

다음 시간에는 변화된 신분의 사람들로써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된 신분다운 처사인지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 【새사람】

- 성경본문: 로마서 6:10-14
- 요 점: 변화된 삶을 가능케 하는 근거

이 과의 핵심은 어떤 ‘한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르면, 6:1과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할 것이고, 알면 12-13절까지의 명령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바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간섭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 여부가 신앙생활 출발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이 ‘여길지어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본문 이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단번에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6: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실체는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써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아이가 있는데 그는 성품이나 행실이 온순하고 여자 같아서 밖에서 놀 때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늘맞고 친구라고는 여자 친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너 좀 남자답게 굴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딸만 낳고 아들은 못 낳은 것이 부끄러워서 여자 아이를 남장시켜 놓고 '남자답게 굴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에게 '남자답게 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11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동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꺼내신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구습이 남아 있어서 계속 그 습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옛 생활 태도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 배우기 힘든 운동 중에 하나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하루 종일 쳐서 공이 상대방의 코트로 3개가 넘어가면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쳐도 3개 밖에 안 넘어가서 '목 매달아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사는 그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밖에 못넘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3개나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3개나! 이것이 테니스를 처음 가르칠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100개 중에 97개는 안 넘어 가고 3개만 넘어갔어'라고 낙담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니스로 비유한다면, 하루종일 쳐서 10개 정도 넘기시는 수준입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한 개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에 대한 위로이며 당연한 박수입니다. 우리는 완성의 자리를 지금의 수준과 잘못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서 '나는 너무 엉망이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다워라'라는 말은 '희망을 갖고 계속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도달한다.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 5장, 6장의 골자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에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_\_\_\_\_

2. 성경이 신자들에게 '신자다워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어떤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_\_\_\_\_

정리를 위한 질문

1. 우리의 현재 수준이 여전히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의인된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성경의 권면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_\_\_\_\_

2. 또한 실제로 내 생활에 있어 의인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위한 첫 출발로 내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_\_\_\_\_

오늘은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사람의 삶의 기준】**

- 성경본문: 로마서 7:1-12
- 요 점: 새 사람의 삶의 원리가 되는 율법의 적극적 의미

생각을 위한 질문

1. 신자들의 삶의 규칙이어서는 안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 ①주일을 지킨다.(    ) ②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 ③간음하면 안된다.(    )
- ④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된다.(    ) ⑤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
- ⑥도적질하지 말라.(    ) ⑦거짓 증거치 말라.(    )

율법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얻어진 완전한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애매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하러 있는 것인가? 세대주의자들 같이, 복음과 대치되는 위치인가, 아니면 3:19-20에서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머무르는 정도인가, 아니면 그 외에 율법도 보다 적극적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 본문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율법과 복음의 상관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으며 복음은 왜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측면은 쉽게 이해되고 있으나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위치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입장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며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는 대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극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 차원에 있으며 어떻게 서로 대조가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약도에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각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은 약도와 같습니다. 즉 약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율법이 명한 대로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율법을 받았으나 장님이라는 사실입니다.(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도를 볼 줄 모르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약도에 그려진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장님은 아무리 정확한 약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점까지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인 우리의 눈을 밝히는 선행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밝히는 작업이 곧 복음입니다. 율법을 약도라고 한다면 복음은 눈을 뜨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눈을 뜨고 난 후 필요한 것은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것입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이미 눈뜬 자를 인도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복음으로 눈을 뜬 자는 율법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떴으므로 약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우리들이 약도를 들고 목적지까지 가야 할텐데 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구원을 얻은 후 비로소 십계명을 심각하게 생활의 지침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십계명을 준수하는 일에는 등한하며 율법을 경홀하게 여기면서 모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오’라고 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전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목적지로 가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자 이제는 드디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목표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선 자체에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출발선에 서게 된 이후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문제이며, 율법은 구원 얻은 자가 신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이므로 구원 얻게 된 것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율법의 필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가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실제로 지키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다가도 때때로 죄에 빠지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로부터 늘 위로하고 분발시키십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율법을 약도로 비유했을 때,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_\_\_\_\_
2.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자, 그 눈 뜬 감격으로 인하여 정작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신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을 얻어 눈을 뜨면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마땅합니까? \_\_\_\_\_

#### 정리를 위한 질문

1. 복음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즉 눈을 뜨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

2. 장님인 자가 받은 율법을 약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율법의 소극적 용도와 적극적 용도를 말해 보십시오.

---

#### ※도움말

이번 과의 흐름상 율법의 은혜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규 진행과정에서 다루지 못하고, 부록Ⅱ 율법의 은혜성에 참고할 부분으로 실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신자의 삶의 길잡이 (Guide Line) 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혜의 성격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Ⅱ 율법의 은혜성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방법도 아니며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이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구원론과 관계하여 늘 일어나는 궁금증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듯이, 율법이 한 시대에는 분명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실효가 없기에 믿음이라는 구원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 중의 한 단계인 것인가?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방법을 여러가지로 변경하셨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 같은 그분의 성품을 거스리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올바른 해석법은 일단 하나님의 구원방법의 일관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은혜라는 방법과 연결되는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원리에 입각한다면 율법도 구원과 관련을 가져야 되며 그것도 은혜로운 면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데, 과연 율법이 은혜로운 면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익숙하게 아는 바로는 롬 3:19-20에 있듯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법적 냉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참으로 말하고 싶은 율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분명히 정죄의 기능보다는 적극적으로 은혜에 동

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과 거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들을 선민으로 자처하게 한 할례사건을 통해 율법의 은혜성을 보도록 합시다. 할례의 명령은 최초로 창 17장의 아브라함의 개명(改名)사건 직후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가 이름을 새로 받은 것과 할례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할례가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는 무슨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불가능함을 증가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의 생식 능력이 단절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식 능력이 불가능하게 된 자가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이 많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브라함은 이를 오해하여 이스마엘을 낳음). 그것은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출생되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임을 뜻하는 개명(改名)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생식이 불가능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조건으로써 만들어내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후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할례를 행하여 그 뜻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해 놓은 일이니 너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어떤 결과를 낳으라는 조건이기 이전에 그 율법을 주신 분 쪽에서 이미 그 결과가 가능케 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즉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높은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율법은

정죄의 기능 이전에 그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셈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5:12에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계명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애굽 군대에 대해 완전히 경계를 풀 수 없고 여행을 중단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안식의 절대조건은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란 신분입니다. 노예였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식을 하면 자유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 줄 것이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선결 문제인 ‘노예가 되었던 것, 아직도 경계해야 될 위험과 광야의 여정들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이다’가 내포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영벌에 처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는 은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애써서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선결조건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시키기가 가능해진 율법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갖는 적극적인 측면인 은혜성입니다.